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0호 【루게 제 24553호】 주제 103 (2014)년 5월 20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제 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5월 19일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린 뜻깊은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된 대회 참가자들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하여 공연 장소는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황병서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최봉해 동지, 김여정 동지와 당, 무력기관 일군들, 대회 참가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주제문학예술발견사 또는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로 아로새겨질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21세기 문예부흥의 위대한 진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그들을 고무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제문학예술의 개화발전에 공헌한 문학예술부문 공로



보여주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숭고한 미학관, 위대한 창조세계의 빛나는 구현인 훌륭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따라배워 예술창작창조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노래형상과 열정적이며 세련된 기악, 높은 예술적기량과 화려한 무대배경 등 황홀한 음악세계는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화를 위한 총진군대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으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승리와 번영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갈 문학예술인들의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자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새시대 문학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과 방창 《사랑에 대한 생각》,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장군님 생각》, 경음악과 노래편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 녀성중창 《전선행렬차》, 경음

악편곡 《세계명곡목욕》, 녀성 4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중곡 《인민은 일편단심》의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주시고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시며 새세기 주제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격조 높히 구가하였다.

문학예술을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사상공세의 음악포성, 노래포성을 힘차게 울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체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인민이 사랑하는 시대의 명작

으로 창작완성된 곡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끝없는 흥분으로 뒤흔게 하였다.

언제나 문학예술인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삶을 빛내어 주시고 조국명우에 20세기 문예부흥기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장내는 뜨거운 격정에 젖어들었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종목들로 장내를 들끓이시며 출연자들은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는 시대의 벽찬 순결, 사랑과 정으로 뜨거운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깊게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에 솔직으로 완벽한 공연을 펼쳐보인 출연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였으며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듯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명작창작의 불길 높이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전체 문학예술인들의 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정론

백두의 행군길은 영원한 승리의 길

우리는 가고있다! 백두의 행군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따라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걸어온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신심드높이 가고있다.

1

기적의 시대이다. 조선속도라는 비범한 기상으로 추구추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우리 어찌 한꺼번에 다 꼽을수 있으며 시대를 격동시키는 사변들의 심원한 의미에 대하여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는가. 인민의 꿈이 현실로 되는 시대, 나날이 젊어지는 청춘시대를 맞이한것은 우리 세대의 행운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오늘 생각이 더 깊어지게 하는것은 우리 혁명이 너무나 길게 이어왔으며 그로정에서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기상을 떨치는 력사적업무를 본질은 어찌나 오늘이나 다름없다는 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 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지난 4월 백두산기슭에서는 의미심장한 사변이 일어났다.

정세가 그처럼 침체한 시기에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백두산으로 불러주신다고 할일혁명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하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또 한꺼번에 상상한 총대원수들과 백두밀림에서의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었다.

조선은 어떤 나라이며 무엇으로 승리해나가고있는가.

다시 한번 명쾌한 대답을 주는 백두산 사변이였다.

최후승리의 공적전에 나선 이 땅의 모든 병사들과 인민들, 당원들과 청년들이 다시 한번 백두산이라는 거대한 신념의 산악을 한가슴에 안아보았다.

우리의 길은 백두의 행군길이다. 대를 이어 승승장구하는 혁명에는 반드시 전통에 대한 이해가 있다.

생활속에 들어가보아, 사람들은 먼길에 오를 때 절실히 필요로하는 가장 중요한것만을 배낭에 가지고 떠난다. 그것만 있으면 마음이 언제나 든든하고 힘들어도 않으며 친리로 지치지 않게 된다.

다만 혁명을 넘고 정쟁을 건너 불바람 불고 눈보라 헤쳐며 대를 이어 떠나는 길을 가는 우리의 혁명대오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이것이 있다면 다른 모든것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다. 이것만 있으면 설사 하늘이 바뀌어도 다시 시작할수 있고 빈터에에서도 다시 일떠설수 있다. 돈이나 재부는 전통을 낳을수 없지만 우리의 혁명전통은 원하는 모든것을 낳을수 있다.

오늘 눈앞에 펼쳐지는 력사적현안은 다름 아닌 혁명전통이라는 든든한 뿌리에서 찬란으로 펼쳐진 가지와 무성한 잎새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삼지연 혁명전지지를 찾으신데 이어 마두산혁명전지지를 불멸의 자욱을 찍으셨던가를 생각해보실수 가슴이 답답아온다.

백두밀림에 거룩한 자욱을 찍어가시며 이 길을 주체혁명위업이 원수님 때까지 이어야 한다고 하시던 그 심중에, 투사들의 신장소리가 특출 울려오던것만 같은 구조문헌들을 한자한자 새겨보시던 그 곁을걸음을 꾸린 무엇이 뜨겁게 자리잡고 있었던가를 우리는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이 땅에 사는 인민의 품과 백두산은 우리의 행군길에서 하나로 이어져있다. 백두산과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하나의 생명체마냥 가늘며 가늘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울리고있다.

우리는 혁명가 《혁명군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합니다.

백두의 행군길! 설한봉이 휘쓰는 험한 산중에 걸실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산림속에 눈덮고 누워있지만 끓는 피는 더욱더 뜨거워진다는 《혁명군의 노래》 부르며 투사들이 걸어온 길이다.

바로 그 길을 따라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우등불가에서 회상과학소도 하면서 항일의 빨치산들처럼 밀림속을 헤쳐갈 때 가슴속에 차오르던 세 세대 총대원수의 영에는 얼마나 승연한것이었고 백두산노보라가 피뒀어주는 혁명열은 얼마나 뜨거웠던것인가. 백두의 눈보라를 단단히

그들이 그길로 사상의 무기를 메고 향장노안의 인민들속에 들어가 참신하고 실속있는 항일유격대식사상전의 포성을 울렸을 때 그 반향은 또 얼마나 대단하였던가.

신신하고도 장쾌한 백두산바람이 우리의 행군길에 불어왔다.

백두의 풀무로 항일유격대부장의 모란봉악단의 향장노수회공연과 더불어 우리 생활의 꿈은 더욱 성실로워졌고 승리의 신념은 또 한번 더없이 번쩍 들게 만장약되었다.

우리 혁명이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하고있는것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백두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해나가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평온치 않다. 우주에서 보이는 지구의 대륙과 대양은 그지없이 아름답지만 사실 이 행성이 안고있는 위기는 심각하다.

물부족, 식량부족, 에네르기부족, 자연고갈, 대기오염, 온난화, 해일이 들이닥치는 현과... 인구증가와 경제발전, 생활형역의

확대에 대처하지 못하여 이 푸른 행성이 겪고있는 위기는 크다. 하지만 여기에 비할바없이 큰 재난을 몰아오는자들이 있다.

핵과 인공소동, 분열과 리간책동... 리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들을 고립압박시켜 이 행성에서 저들만이 살아남고 이 지구촌 저들만의 무한한 자유와 치부의 세계로 만들려는 지배주의자들의 강도적리과와 극도의 파벌치성으로 하여 수억만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수 없다.

둘러보면 이 지구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정치적인동과 총포탄작렬의 밀바람에는 리해관계와 힘이라는 두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목적과 수단, 이 두 변수의 변화가 없다면 따라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있다. 그것이 진짜처럼 둔갑하고 공경정을 잃은 결의요, 제재요 하는 여겨온 말들이 뼈저리 추대로 옮겨지고있다. 단 며칠사이 에 제대미로 되어버린 나라도 있고 때없이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도 있다.

멸망하던 나라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상충하던 국력이 어느 사이에 물거품된 실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다.

지배와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악의 무리들은 저들의 리해관계를 쟁기 위하여 세계를 속이는것은 식은죽먹기로 하고있으며 핵학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같은것들을 유감없이 리적기처럼 지구의 이쪽저쪽으로 끌고다니며 허세를 부리고있다.

현대문명과 더불어 인간세계는 많이 달라졌다. 허나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보와 반동, 정의와 부정의의 대립에서는 달라진것이 없다. 다만 이전에는 산수적인 셈법에 따라 계산되고 단순한 적대관계로 표현되었다면 지금은 힘과 리해관계의 대립이 고차방정식처럼 힘겨게 가능할수 있는 복잡한 얽힘속에서 나타났달이다.

이러한 환경과 정세의 소용돌이에 적응하는 능력, 형세를 틀어쥐고 자기 민족의 앞날을 열어나가는 전략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긍지높이 자부할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위대한 승리의 기치, 자주적혁명정신이다. 자기의 리념, 자기의 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제정신을 차리고 제갈을 간담에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것도 없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바로 이 위대한 자주정신으로 승화된 력사와 경험을 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창시되었습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 이룩되었으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었습다.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습다.

이렇듯 훌륭한 주체의 전통이 있기에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것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것도 없다.

원천이 마르면 샘이 나올수 없고 뿌리가 죽으면 거목도 전대가 된다.

력사는 이미 좋은 전통이 있어도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면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왕성하였던 민족기강과 영기세를 잃는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자기의 력사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사회를 단합시키려는 너무도 응당하며 자기에 민족부흥의 출로가 있다.

우리의 행군길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정당하고 용감한 락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유일한 백전백승의 길이다.

승리의 년대기들이 걸렸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모진 광풍을 맞받아 뚫고왔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왔다. 남달로운 열변도 왜색하고 봉기시켰을 집요한 도전을 단호히 쳐갈기며 자주적백방과 정치지적조를 지켜준것이 백두의 혈통과 신념, 백두의 기개가 어린 백두의 칼날이다.

제국주의위파리파가 남쪽상공을 뒤덮고 침략의 작기를 부릴 때 백두산혁명군간의 본태를 보여준 전투기를 주시단에 올려놓고 건군사에 일제기 없었던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진행되던것은 우리의 행군길에 맥맥히 고동치는 백두산단력과 배짱이 어떤 것인가를 파시한 력사적사변이다.

하기에 열마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상전과 식민지주구가 가스공포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 공포의 꾀기를 부릴 때 우리의 병사들과 인민들은 배심드들하여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펼쳐들었다.

얼마나 특색있고 통쾌한 우리 식의 승리와 얼마나 자신만만한 우리의 행군길인가. 참으로 풍부하고 심오한 전통이 우리의 행군길에 울려퍼지고있다.

단절이자 승리이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뜻으로 뭉치고 하나의 길을, 하나의 목소리로 뭉치는 가장 공고한 단결, 최강의 단결의 시원이 백두산에서 일어났다.

선군과 동시에, 군인일치와 자력갱생으로 승리하고 조국과 인민,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승리한 이 고귀한 전통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선군조선의 명맥을 이어주는 여섯 피줄기이다.

조국에 개선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에서 메고 오신 배낭 하나뿐이였지만 이 혁명의 배낭에서 건장, 건군, 건국위업이 기록되고 미래를 서산략일의 운명에 처넣은 영웅조선의 신화가 창조되었으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회주의천리마가 날아올랐다.

우리의 성스러운 당기와 아름다운 국기에, 우리 소년단원들의 붉은베라이에, 우리의 대지에 혁명선열들이 흘린 피가 스며있으며 우리의 국장에도 항일의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오각별이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10대에 벌써 백두산에로의 첫 답사길을 개척해주시었고 주체

위업의 계승기에는 혁명전지적과 혁명사적지들을 발굴하고 꾸리는 거창한 사업을 발기하시고 혁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생활에 5대혁명가극, 5대혁명연극이라는 뜻깊은 시대로도 탄생시켜주시었고 혁명소설, 혁명영화의 새 역사도 펼쳐주시었다. 《사상도 기쁨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온 나라에 백두산공기와 같은 청신하고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이 짙다치게 하여주시었다.

둘러보면 이 지구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정치적인동과 총포탄작렬의 밀바람에는 리해관계와 힘이라는 두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목적과 수단, 이 두 변수의 변화가 없다면 따라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있다. 그것이 진짜처럼 둔갑하고 공경정을 잃은 결의요, 제재요 하는 여겨온 말들이 뼈저리 추대로 옮겨지고있다. 단 며칠사이 에 제대미로 되어버린 나라도 있고 때없이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도 있다.

멸망하던 나라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상충하던 국력이 어느 사이에 물거품된 실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다.

지배와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악의 무리들은 저들의 리해관계를 쟁기 위하여 세계를 속이는것은 식은죽먹기로 하고있으며 핵학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같은것들을 유감없이 리적기처럼 지구의 이쪽저쪽으로 끌고다니며 허세를 부리고있다.

현대문명과 더불어 인간세계는 많이 달라졌다. 허나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보와 반동, 정의와 부정의의 대립에서는 달라진것이 없다. 다만 이전에는 산수적인 셈법에 따라 계산되고 단순한 적대관계로 표현되었다면 지금은 힘과 리해관계의 대립이 고차방정식처럼 힘겨게 가능할수 있는 복잡한 얽힘속에서 나타났달이다.

이러한 환경과 정세의 소용돌이에 적응하는 능력, 형세를 틀어쥐고 자기 민족의 앞날을 열어나가는 전략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긍지높이 자부할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위대한 승리의 기치, 자주적혁명정신이다. 자기의 리념, 자기의 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제정신을 차리고 제갈을 간담에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것도 없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바로 이 위대한 자주정신으로 승화된 력사와 경험을 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창시되었습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 이룩되었으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었습다.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습다.

이렇듯 훌륭한 주체의 전통이 있기에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것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것도 없다.

원천이 마르면 샘이 나올수 없고 뿌리가 죽으면 거목도 전대가 된다.

력사는 이미 좋은 전통이 있어도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면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왕성하였던 민족기강과 영기세를 잃는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자기의 력사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사회를 단합시키려는 너무도 응당하며 자기에 민족부흥의 출로가 있다.

우리의 행군길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정당하고 용감한 락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유일한 백전백승의 길이다.

승리의 년대기들이 걸렸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모진 광풍을 맞받아 뚫고왔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왔다. 남달로운 열변도 왜색하고 봉기시켰을 집요한 도전을 단호히 쳐갈기며 자주적백방과 정치지적조를 지켜준것이 백두의 혈통과 신념, 백두의 기개가 어린 백두의 칼날이다.

제국주의위파리파가 남쪽상공을 뒤덮고 침략의 작기를 부릴 때 백두산혁명군간의 본태를 보여준 전투기를 주시단에 올려놓고 건군사에 일제기 없었던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진행되던것은 우리의 행군길에 맥맥히 고동치는 백두산단력과 배짱이 어떤 것인가를 파시한 력사적사변이다.

하기에 열마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상전과 식민지주구가 가스공포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 공포의 꾀기를 부릴 때 우리의 병사들과 인민들은 배심드들하여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펼쳐들었다.

얼마나 특색있고 통쾌한 우리 식의 승리와 얼마나 자신만만한 우리의 행군길인가. 참으로 풍부하고 심오한 전통이 우리의 행군길에 울려퍼지고있다.

단절이자 승리이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뜻으로 뭉치고 하나의 길을, 하나의 목소리로 뭉치는 가장 공고한 단결, 최강의 단결의 시원이 백두산에서 일어났다.

선군과 동시에, 군인일치와 자력갱생으로 승리하고 조국과 인민,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승리한 이 고귀한 전통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선군조선의 명맥을 이어주는 여섯 피줄기이다.

조국에 개선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에서 메고 오신 배낭 하나뿐이였지만 이 혁명의 배낭에서 건장, 건군, 건국위업이 기록되고 미래를 서산략일의 운명에 처넣은 영웅조선의 신화가 창조되었으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회주의천리마가 날아올랐다.

우리의 성스러운 당기와 아름다운 국기에, 우리 소년단원들의 붉은베라이에, 우리의 대지에 혁명선열들이 흘린 피가 스며있으며 우리의 국장에도 항일의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오각별이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10대에 벌써 백두산에로의 첫 답사길을 개척해주시었고 주체

희망의 웃음을 가득 채워주시였으며 주체혁명의 기관차를 더 우렁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억세게 전진하게 하여주시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눈물짓는다.

그이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꿈과 리상을 인민은 안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민의 나라에 보란듯이 행부와 변영의 탐을 쌓아올리자, 나날이 힘이 강해져서 그 어떤 원수도 범접 못하고 나날이 흥하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나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지구의 한복판에 우뚝 올려세우자.

그이께서는 최후승리봉으로 향한 우리 행군길의 폭과 속도도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도 이미 다 가지고계신다. 모든것이 명확하고 빈틈이 없으시다. 무엇을 해놓으시든 하나하나가 시대의 표준이고 미래를 앞당겨놓는 본보기이다.

과학연구기, 병원, 유희장, 물놀이장, 승마구락부, 스키장, 소년단야영소, 노동자합숙, 과학자들의 살림집, 수산사업소... 그 모든것이 어떤 속도로, 어떤 높이에서 건설되었는가를 보면 그이의 마음속에 피르고 있는 혁명세계의 송고함을 알수 있다.

조선이 백두의 행군길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가고있는가,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여기에 그이께서는 소리치며 마구 오는 행복으로, 폭풍같은 창조속도로, 하늘담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로 모든 대담을 주시였으며 이것으로써 태양민족의 100년과 100년을 하나로 이어주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그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이런 전설적인 기적과 장엄한 생활을 낳으며 거대한 물질적재부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한다는데 대하여 현실로 보여주시였다.

세상사람들이 아직도 그 의문을 풀기 어려워하는 줄라온 이야기.

세계혁명사에 찾아보기 드문 믿기 어려운 하나의 사실에도 우리 시대, 우리 행군길의 진짜본질이 비껴갔다.

망명대에서 뜻밖의 조난을 당하고서도 배를 포기하고 탈출하려는 조국의 명령앞에서 자기 살길을 찾았듯이 아니라 수심일간의 치열한 전투끝에 배를 살려내고 마침내 전진 무사히 돌아온 조선의 장한 아들들.

보통대에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발취한 그 영웅적소행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원하는것을 위하여 바친 생은 후회가 없다.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이주는 위대한 품이 있었다것을 생각할 때 인간은 절해고도에서도 두려움을 모으며 그 품속에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사명관동지를 위해서라면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는데서 백두밀림에서 투사들이 간직하였던 인생관이고 장군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것이 고난의 행군을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철학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0.001mm의 탈선도 없이, 0.001%의 리도 없이 순결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영광이면 우리는 더 바랄것이 없다. 시간과 정의도 우리의 편이고 승리로 과학이라는 우리의 믿음과 배심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조국이 가장 존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에 《가는 길 힘내도록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처음으로 내걸었던 자강도통계국임이 오늘날의 행군길에서 《원수님 따라 찬란리》라는 글발을 큼직하게 써붙이여 영광의 노래,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려는 것이 태양을 따르는것처럼 너무나 당연하다.

찬란리이면 어떠한고 억만리이면 어떠한가.

공파로 끝까지 갈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불망은 강산에 넘쳐흘러도 우리의 마음속엔 백두의 흰눈이 녹지 않았다.

일리와 기대, 맘풀려야 할 지지는 건설장들과 철의 기지를, 지하망장과 협동전야에 이어서 우리 삶의 좌표는 언제나 백두산이다.

우리 잊을수 없다.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과 백두의 천고밀림을 손수 종이에 그려놓으시고 자신께서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답사행군에 참가한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기세충천한 모습을 매일 사진으로 보며 동무들과 함께 답사행군길을 걷는 심정으로 심장을 불태웠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뜻깊이 이어가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찰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고 하신 말씀은 얼마나 가슴후닥히 하여주었던가.

우리는 다시 보고있다.

자신께서는 언제나 백두산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혁명인 어버이수령님과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기록하신 모습.

백두의 행군길에서 앞장서야 할 총대원수들에게 정과 믿음을 담아 뜨겁게 부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피끓는 혁명열이 가슴을 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산의 눈보라! 백두의 칼바람!

시대와 력사의 뜻을 안고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기적과 변혁을 노래하는 시대어들의 밀바람에 보이지 않는 진짜시대가 되어 우리의 행군길에 기발처럼 날리고있다.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다.

이것으로 심장의 피를 더욱 끓여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온갖 도전의 설한봉이 이층삼층으로 뒹굴고있는데 우리의 붉은 피가 식어서야 되겠는가.

《반일전거》가 태어난 천고봉의 눈보라 행군길, 피어린 처장지의 결사수호정신, 못바늘로 재봉기바늘도 만들고 맨손으로 연결편을 만들었던 그 자력갱생정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있다.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더욱 붉이라, 백두의 붉은 피를!

끓는 피는 설한봉을 이긴다!

백두의 넘으로 피를 끓이면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도 김철, 차방수처럼 열렬의 혁명가가 되고 애어린 청춘도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을 웃으며 달리는 영웅이 될수 있다.

백두산담사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 혁명의 피자욱이 초목야에 생생하고 격전의 총포성이 울려다져서 메아리치는듯 한 백두산에 울려보이지 못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말할수 있는가. 백두산눈보라를 맞아보지 못하고 백두의 붉은 피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가.

백두산은 혁명가들의 용광로이다. 여기서 결사용어, 결사관철의 피를 끓이면서 무서운것이 없다. 여기서 총정과 예극의 피를 끓이면 뒤집어놓아도 거꾸로 메달아 놓아도 변치 않는 신념의 인간이 되고 그러면 난관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강철같은 의지의 인간이 된다.

《행인들이여 이 땅의 일복일초 무심히 보지 말라 김대장 흥행따라 독립 위해 싸운 신념의 피를 끓여라!》 《혁명에 다진 우리의 마음 순간도 변치 않리라!》 《피호르는 이 땅에 응유대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구호문헌들은 한번 보지만 하여도 힘이 솟고 피가 펴릴 끓여버린다.

답사길에 오른다고 하여 저절로 백두산의 아들딸이 되는것이 아니다.

투사들의 인생관을 심장으로 느끼고 의식적으로 따르려워야 한다.

진정한 신념의 피를 혁명의 붉은 피로, 원천의 피마를 승리의 불바다로 되게 한 투쟁정신을 세우자 한다. 희망의 표제는 붉은 기고 헤지는 구호는 투쟁뿐이다. 원수와의 현실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고 추상같이 단락하면 그 신념의 목소리를 들이여야 한다. 용진용진 나아가게 용감스럽게 억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유격대행진곡에 발걸음을 맞추어야 하며 목숨이 끊어지지 전엔 노가 되지 않겠다! 그 각오, 대양과 대륙을 총횡무진하여 우리 피를 빨아먹는 놈들을 세상에 그럽자도 없애버리겠다! 그 기개를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혁명전지적들과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뿐 아니라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 회상기학습...이런것이 몸

에 록 빠이고 생활의 습관으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다진 건전한 정신과 피끓는 혁명열로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맞서고 이렇게 버린 백두의 칼날로 적들의 준동을 짓부셔야 한다.

적들은 미사일로는 몇개의 대상을물과 피할수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돈으로 심리전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내놓고 떠벌이고있다. 누구나 백두의 혁명열로 애발침중을 하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벽으로 막을수 있다.

오늘 우리가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것은 우리 원수님의 혁명정신과 발걸음에 마음과 보폭을 맞춘다는것이다.

자 나 개나 출격명령을 기다리는 김정일비행대의 육단, 자복용사들처럼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근위부대, 영웅부대의 군인건설자처럼 최고사령관동지가 가장 완벽한 결사관철의 보급을 드리는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이런 투쟁이 오늘 시대가 부르는 피끓는 삶이다.

조선속도창조의 봉화를 높이 든 인민군대원수님의 칼바람과 같이 드센 공격정신으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지금 청년들과 세로들만이 그렇게 젊고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장이 그렇게 불타고있다. 로동계급이며, 우리 공장, 우리 일터에서도 승리의 소식과 혁명의 새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열망으로 피끓이며 다시한번 분발해나갔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라.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라고 신념들이 새겨놓은 그 글발의 송고한 정신으로 피끓이며 세계를 압도하는 지식과 열정의 탐으로 우리 원수님을 받들자.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총동원정신으로 찬반이 떨쳐나 사회주의혁명군을 그대로 강성국가의 쌓창고로 전변시키자.

《피호르다!》 울려만 만강의 초연무대가 창작가, 예술인들을 지켜본다. 간고한 행군길에 광명의 꽃을 피우고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항일의 투사들처럼 필승하고 풍만한 우리 식의 향기로, 혁명의 복소리로 온 나라를 뽀뽀하게 하고 영광의 행군길을 더욱 고무추동하자.

우리 원수님을 비약의 불바람으로 받들자면 항일투사들처럼 학습하고 또 학습해야 한다.

열성이 백이라도 모르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먹는것보다 배우는것이 더 귀중한 혁명의 향신이라고 하면서 간고한 싸움과 행군의 나날에도 손에 책을 놓지 않았으며 시간을 내고 품을 들여 공부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대비약의 꿈을 안고 달리는 우리의 행군길에서 실력을 높이는 문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안목과 비상한 설계도, 세월을 주름잡으시는 평도의 발걸음에 따라서서서 위한 선지적이며 중요한 혁명사업이다.

멀리 앞을 내다보는 진취적이고 창조적 인 일본새와 함께 자기 단위,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어려운 과제도 단숨에, 완전무결하게 해결수 있는 막힘없는 실천력을 키워주겠다는 원수님의 혁명전사자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우리의 행군길은 백두산에서 남해바다에로, 최후승리에로 곧바로 이어져있다. 찬란군민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영웅사시사를 힘있게 수놓아가자. 백두산눈보라기상으로 세계를 들끓게하는 조선속도를 파격히 창조해나가자.

백두의 칼바람으로 주체의 새로운 100년대를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신념과 배짱이 승려하는 영광의 년대기로 만드자.

영광넘친 조선의 행군길이며, 백두산대군의 영원한 승리의 길이며, 혁명대대의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만을 받들며 우리는 하늘땅 끝까지 갈다야.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두번다시 태어난대도!

리 동 찬



#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자

## 모내기전투에 역량을 총동원

모내기 한창인 사회주의 협동농장에 온 나라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성, 중앙기관, 각 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보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모내기전투에 총동원되어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물질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올해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농촌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고 있다.

농촌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도우주기 위한 성, 중앙기관들의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력공급성에서는 농촌에 필요한 전력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설비들과 선로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수설비들의 만가동보장에 요구되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보내줌으로써 농촌들에서 모내기전투에 열정적으로 내밀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트랙터드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 등 많은 영농물자들을 마련

하여 신계군 마산협동농장에 보내주었다. 철도성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은 한해농사에서 가장 중요할뿐 아니라 많은 로력과 높은 기술요구로 인해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기간에 와달라 해결해야 하는 트라ктор 모내기전투의 특성에 맞게 수송을 책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 여러차례에 걸쳐 1만여㎡의 비닐밭과 수만점의 중농기구와 농기계부속품을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들을 육산군 서촌협동농장에 보내준 채신성에서는 로력지원에서도 도모를 보이고 있다. 성의 일꾼들은 정무원들과 근로자들에 농사를 잘 짓는것이 경제실적문제보다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켜내나,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나 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모두가 모내기전투에 열정적으로 나서도록 조직사업을 잘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무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농촌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돕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 있다.

화학공업성과 경공업성, 의과단사업총국,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일꾼들은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려라하며 모내기전투에 전국각지, 전인민적인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며 모를 싣게 키우는데 필요한 많은 영농물자와 중농기구들을 성의 것 마련해가지고 해당 농장들에 나간 정무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내기를 도와주면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자연보호회맹, 조선기자

동맹 중앙위원회에서도 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이곳 일꾼들은 농촌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드는 데서 자기 단위가 앞장서 사하고 하면서 모내기전투에 한층 더 힘있게 나서고 있다.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모내기전투를 성공적으로 결속하여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정령을 위한 물과 기름을 남기지 않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황해남도의 일꾼들은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도가 큰 몫을 맡고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농장들에 달려나갈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 있다. 시, 군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마련한 수십만㎡의 비닐밭과 40여종에 32만점의 중농기구, 20여종에 3000점의 트랙터부속품을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들을 농장들에 보내주고 로력지원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박천군 맹종협동농장의 농장원들»**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박천군 맹종협동농장의 농장원들

##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

◇ 모내기로 들끓고있는 사회주의협동농장에서 혁신의 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배의 모내기실적을 올렸으며 평안북도, 황해남도가 그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다. 특히 박산, 안악군이 매일 높은 실적을 올려 모내기를 최격기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도, 시, 군, 농장들에는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 것을 심장에 새기고 자기 단위의 모내기를 자기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미더운 일꾼들이 지각되어 있다.

◇ 올해 모내기전투는 자기 단위의 일을 전적으로 책임진 입장에서 사업하는 일꾼들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꾼이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모내기전투에 역시 우리 일꾼들에게 달려있다. 특히 일꾼들의 사상과 견해, 행동이 의거하고있는 바탕인 립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단위의 모내기성공과 크게 좌우된다. 책임지겠다는 립장이 확고한 일꾼의 앞길에는 성공만이 있다. 이런 일꾼에게는 천리도 지척으로 보이고 높은 산도 발밑에 놓이는 배심이 생기며 자기와 운명을 함께 할 대오가 무성해진다. 약동하는 기상이 내뿜었던 1970년대의 일꾼들의 교훈은 책임질 각오가 확고하면 막대한 문도 열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열려진 문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내기는 한해농사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통과구미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해제거야 하는 어렵고도 막대한 영농전투이다. 따라서

일꾼들이 자기 단위의 모내기를 자기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하는데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된다. ◇ 일꾼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모내기전투를 책임져야 한다. 모내기전투성과를 위해 우리 일꾼들이 있다. 모든 일꾼들은 **«내가 책임지겠소.»** 라는 말을 당앞에 다진 심장의 맹세로 무겁게 간직하고 끝까지 실천하여야 한다. 도, 시, 군, 농장원들은 올해농사의 운명이 자기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피라게 사색하여 모내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는 묘수를 부단히 찾아내야 한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신전진, 화신전진을 강도높이 벌려 협동농이 혁신창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일꾼들이 서야 할 위치는 들끓는 포전이다.

일꾼들은 언제나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제일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해제거 일정을 계획해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넓은 밭에 로력과 농기계, 영농물자를 집중하여 모를 내야 하는 조건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정황에 따라 걸린 고리를 포착하고 스스로 말아 제때에 정확히 풀어야 한다.

우리의 일꾼들은 자기가 맡은 도, 시, 군, 농장, 작업반, 분조농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일꾼들은 맡은 단위의 모내기속도와 질보장이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불가지 모든 일의 참된 주인이 되어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 특히 여기까지 실천행동 모내기방법이 도입된 실정에서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어 모종유형특성에 맞게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를 내도록 기술적지도에 힘을 들어가야 한다.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후방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모든 일꾼들은 자기 단위의 모내기전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각오로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삼지연군 홍계수농장 제2작업반 포전에서 지금 감자심기 마감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감자종자를 실은 자동차가 포전에 들어서기 바쁘게 작업반원들이 감자종자들을 신속히 부리운다. 트랙터로 뒤에서 견인된 감자심는기계의 공명음이 감자종자들을 그득 그득 채워가는 그들의 일숨새는 여간 날렵하지 않다.

이윽고 트랙터가 감자심는기계를 끌고 포장을 누빈다. 기술원 세명, 분조장 박민복 등무들이 더 열심히 일손을 다그친다. 또다시 공명음이 감자종자가 그득히 채워진다. 드디어 트랙

포가 마치막고랑을 타고 기운 차게 달린다. 잠시후 작업반원들의 웨칭 소리가 포전에 울려 퍼진다. **«감자심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현재 우리 작업반이 제일 앞입니다!»** 환성이 터져오른다.

기쁨에 넘친 반원들을 둘러 보며 작업반장이 강조한다. **«종자, 물거름, 정성 이 세가지를 틀어쥐면 감자대풍은 문제없소. 이기세로 올해의 감자농사를 본뜬듯이 지어 백두대지에 기여 감자대풍을 안아오시라.»**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원수님의 현직자성을 높이 받들고 올해감자농사에서 기여 대풍을 안아오고 그들의 불꽃은 열의를 달아내고 멀리 남포대산마루에 노을이 비친다. **특파기자 전 철주**

## 수리전투장을 포전에 이동전개하고

정평군 농기계작업소 일꾼들과 대수리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봄철에 들어서면서 모내기에 개조와 수리, 들춰같이보습생산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김성근, 오중환, 기성남동무를 비롯한 작업소의 일꾼들은 올해에도 군안의 모내기전투장을 나가 농기계들에 대한 이동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일꾼들은 작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이동수리에 필요한 여

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하기에 군안의 트랙터운전수들과 모내기에운전공들은 이들이 함께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작업소에서는 이동수리가 긴장하게 진행되는 데 맞게 필요한 부속품생산전투를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다. 그 앞장에 트랙터부속품공공기구 등 많은 지구, 장비들을 생산제작하여 부속품가공속도와 질을 높일수 있게 한 가공작업반 반장 주재운 동무, 장의고안명승인 트랙터부속수리작업반 반장 주정길동무, 소재작업반의 한국철, 한국철동무들이 서있다. **특파기자 박 동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는 곧 밭이고 들은 농사입니다.»**

지난 4월말이었다.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일꾼들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지숙현 가물대문에 물량이 부족하여 물길의 말단에 위치한 농장까지 물을 보내기 어렵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예상밖의 소식에 일꾼들은 아연해했다.

## 가물을 막아낸 대담한 작전과 실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자면 보막이를 해야 하였으며 중요하게는 양수장을 건설하여 물을 물길에 퍼올려야 하였다. 그러나 로력이 긴장하였고 당장이 공사에 쓸 설비와 자재가 없었다. 긴급회의가 열렸다. 작업반 초급일꾼까지 참가한 속에 진행된 회의에 이 문제가 상정되었다. **«물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올해농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여이 점령할 각오로 분발해나선 우리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믿습니다.»**

리당일꾼의 이 말을 판리위원 장 로기남동무가 이렇게 받았다. **«웁습니다. 저는 농장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이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을 제기합니다.»**

양수장건설에 펼쳐나선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해낼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자각을 안고 농에 밤을 이이 가며 기초를 닦으며 흙대뿔을 메고 달려갔다. 그리하여 이를 동안에 500여㎡의 토랑을 처리하고 기초공작트치를 제때에 시작하게 하였다. 기초공작트치기에서 중요한 것은 양생기일을 앞당기는 것이었다. 무조건 해야 하며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각오로 분발해나선 일꾼들이 평양을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며 양생기일을 숙 단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마련해왔다. 농장원들은 성수가 나서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래와 자갈을 날라오면서 공사를 적극 내밀었다.

다른쪽에서는 전기선들이기 철관제작을 맡은 농장원들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시간을 쟁취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한 수리분조의 기능공들은 스스로 고대없는 전투를 벌여 수리m의 철관을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불파 한 주일 남짓한 기간에 양수장을 새로 일떠세우고 보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관계공사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마른씨를 뿌린 그 들녘은 평야에는 생명수가 흘러들 수 있게 되었다. 그 성과를 놓고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이런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건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한층더 실천으로 받아들이야 할 귀중한 명언이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중요한 가물을 안아올 일념을 안고 벼모를 싣게 키워가고있다. -중화군 읍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여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논을 갈고 벼모를 내는것은 어김없는 영농공정이지만 올해 모내기전투에 펼쳐나선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심정은 류다르다. 어느 그렇지 않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보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여이 점령하기 위해 년 초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 이들이었다.

일꾼들은 트랙터드들의 성능과 토양조건, 모내기일정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씨매치기를 지난해보다 한주일 앞당겨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는 방도의 하나를 마련해 씨매치기

에서 찾고 사람과의 사업과 기술적지도에 힘을 쏟았다. 농장에서는 씨매치기계획을 날자별, 포전별로 세우고 로력과 트랙터드, 축력을 집중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수행해나가기로 하였다. 일꾼들이 현장에 나가 농장원들에게 농업전선의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면서 마른씨매치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알기 쉽게 해결해주어 그들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트랙터드운전수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었다.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가 못하는가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한 기계조직원들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였다. 제3작업반의 트랙터드운전수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포전을 제1선창으로 여기고 씨매치기에 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나갔다. 그들은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하여 트랙터드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그날계획을 그날로 이김이 가능해졌다. 제2작업반의 트랙터드운전수들도 우리가 잘살기를 바라지

않은 온갖 원수들에게 단호한 철수를 내리자고 하면서 씨매치기를 최단요구대로 해나갔다. 그들은 트랙터드관리를 간지하게 하고 앞선 방법들을 받아들여 구석진 곳까지 수형이 보장되게 씨매치기를 하였다. 특히 밭교대작업을 하는 때에 더욱 긴장하게 트랙터드를 몰아 하나와 같이 매끈하게 씨매치기를 하였다. 농장에서는 부림소의 리용을 최대한으로 여기고 씨매치기를 다그쳤다. 농장원들은 씨매치기를 질적으로 해야 모내기의 작업능률을 높이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보장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간진 일숨새를 발휘하였다.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펼쳐나선 이들의 혁신적인 투쟁에 의해 포전에서선 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었다.

첫 전투가 시작되던 불과 며칠 안되는 기간에만도 농장적인 씨매치기실적은 지난해 시기에 비해 1.5배로 뛰어올랐다. 농장에서는 대중의 양심전 열의에 맞게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내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본사기자**

씨 레 치 기 를 앞 세 워



모내기전투장에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린다. -백천군 우정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 내 심장의 목소리

사랑을 담아 뜨겁게 (♩=72)  
작사 리혜정  
작곡 림금성

1.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 어머니께 - 아칩니다

쿠뭘도 없이 가식도 없이 - 진 - 정을 - 러칩니다

그러면 정 깊은 어머니 그윽하 신그 - 눈길로 기뻐

던 마음도 - 아팠던 상처도 - 따 - 뜻 이해아칩니다

2. 사랑 아니면 들수 없었던 아픈 때도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펀지없이 그 품속에 안겨들며  
숨졌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리놓습니다
3. 그 품에 자란 천만아들딸 한마음 우러르며  
생물 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됩니다  
땅이여 땅이여 어머니땅이여 영원히 받들렵니다

# 인민들이 모두 기뻐할 때까지

### 락랑 구역 연료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봉사자라면 누구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민의 총복으로 살려주는 지향과 결심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열감문제해결을 위하여 애쓰고있는 락랑구역연료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있을 때 우리에게 갈마든것은 이런 생각이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것은 인민생활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얼마전 락랑구역연료사업소의 한 작업현장에서는 새로 만든 착화판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 종업원들의 눈빛이 모자란 속에 생산부원 장성철동무가 착화판 밑에 손을 넣고 불을 달았다. 그 불이 다 사그라질뻔할때 착화판의 송송한 구멍으로 파아란 불길이 황황 피어올랐다. 성품이라고 모두가 기쁨을 금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한층의 나무로 불을 지피는것도 성과였는데 불과 종이 두장으로도 불을 달게였으니 이 얼마나 큰일인가. 그러나 지배인 김희옥동무만은 머리를 흔들었다.

《더 연구하자요. 종이 한장 아니 성냥까지 하나로 불을 달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어려있었다.

만족을 모르는 지배인, 이것이 종업원들이 아는 지배인의 모습이다.

몇해전 리과대학에서 연구한 새로운 저열탄연소첨가제기술을 성과적으로 도입한 후에도 지배인은 기뻐하는 종업원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엔 끝이 없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면서 새 전기를 펼쳐놓았다. 지구별로 운영하고있던 가스공급을 동별로 운영할수있게 더 달 꾸리고 각종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수 있는 공무기도 더 보강하며 전동기수리기도 꾸려놓았다는것이였다.

《인민들의 열감문제는 아직 원만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밤이 깊도록 뛰노라면 우리 구역의 주민들의 열감문제를 날이 꼭 옮겨요.》

지배인의 이야기는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있던 어느날 사업소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장성철동무가 종업원 윤경선동무와 함께 지배인을 찾아왔다.

그들이 저열탄연소첨가제 생산설비제조안을 가지고온것을 알게 된 지배인은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였는가고 하는 그에게 장성철

은 관심을 가지는것은 연료공급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두고 깊이 생각하며 자기들이 더 할 일을 찾고있는것이였다.

어느날 김희옥동무는 한 주민으로부터 연료를 태울 때 약간의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업소에서는 즉시 기술인군들을 해당 연구기관에 파견하였다. 측정한 결과 연료가 탈 때 나오는 어떤 물질의 냄새였다. 즉소량이었으나 인체에 큰 영향을 없었으나 사업소일군들은 허용오차에 속하는 소 적은 물질이 없었는것을 기술혁신의 급선무로 내세우고 이 문제를 끝내내 해결하였다.

지난 기간 락랑구역연료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많은 일을 하였다. 사업소에는 수리지들이 그 흔하며 첨가제생산기지도 현대적으로 꾸려져있다. 이들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작화제 생산용목재가 있고 돌덩이같은 버려터진도 보드라운 분가처럼 만드는 미분분쇄기도 있다.

사업소의 연료생산량은 10년전에 비해 수백배로 성장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수자이다.

지금도 김희옥동무는 비롯한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만족을 모으며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 선경에 비끼는 살림꾼의 모습

### 회창군의약품관리소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가 나서자만 고향마을과 거리, 자기가 일하는 공장과 일터를 사랑하고 알뜰하게 꾸리려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가꾸어 조국강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진실로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공민적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회창군의약품관리소의 총진령은 얼마 안된다. 칸지 않은 부지를 그야말로 평방으로가 아니라 리방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꾸려가는 그에게 다른 특별한 묘술이 있는것이 아니다. 관리소에 의

어진 자력갱생이 살길이라는 글밭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있다.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우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없어야 아니라 자기 단위 살림살이를 제손으로 꾸려나가는 창조형의 일군이 되자. 이런 자국을 안고 펼쳐나선 살림꾼의 눈에 무엇인들 보물처럼 보이지 않아요.》

땅속에 묻혀있던 수심의 과실을 찾아내어 건설에 필요한 철근을 보강할수 있는것도, 화강석을 해결해줄수 있는 지름길을 모색할수 있는것도 어떻게 해서나 자기 힘으로 일터를 일신하려는 일념을 안고 일하는 투쟁은 결과이다.

새로 일어난 건물에서 살림꾼의 모습이 비껴있는것이 아니다. 의약품생산과 질보장에 리용되는 설비들, 보기만 해도 흐트

한 후방기지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고많은 자량이 깃들여있는것인가.

주사약품생산의 무균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리용되고있는 송강기판 놓고보아도 건물외 구조상 특성을 감안해 따져가며 설계도면을 꾸려 수직변이나 그리는 과정에 완성된것이다.

자재의 힘으로 꾸려놓은 설비들에서 해마다 많은 고품질약과 신약들이 생산되어나올 때 건물외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꾸려놓은 버섯재배장 등에서는 풍성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호프한 풍경이 펼쳐진다.

회창군의약품관리소에 꽃피는 자라는 말해준다. 리상이 높고 건전 살림살이 건설이 선 주인공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펼쳐지고 생활활력의 동음도 높이 울린다것을.

본사기자 박옥경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몽골인민당대표단 경모의 정표시,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일행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9일 몽골인민당 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과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한 위업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다.

《\* \* \*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과 일행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조국의 풍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정생물

# 에스빠냐외무 및 협조성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에스빠냐외무 및 협조성대표단 만경대 방문하고 있는 에스빠냐외무 및 협조성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 몽골인민당대표단 도차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니마드라힌 갈분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에스빠냐외무 및 협조성대표단 귀국하는 에스빠냐외무 및 협조성대표단이 19일 비행장에서 박명국 조선포로

#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대중의 힘은 위력하다

### 성천광산 일군들과 광부들의 투쟁

군 해마다 광물생산을 2배씩 성장시키고있다.

올해 1.4분기에는 두해전 수준의 한해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광물생산량으로 뜻깊은 4월 생산목표도 기한전에 돌파하였다. 자재의 힘으로 진행되는 광부들과 채광, 선광 등 주요공정들의 생산활성화에도 눈에 띄는 전진을 이루고있다.

이때였다. 《물이 샌다. 위험하다!》는 말을 남기고 비호같이 가슴을 치는 물속으로 몸을 날리는 사람이 있었다. 채광기사 김정선동무였다. 흙마대를 맨채로 뛰어들어 그의 뒤를 따라 광부들이 앞을 다투어 뛰어오르면서 서로 어깨성을 띄고 온몸이 방패가 되어 흙마대를 지켜선 이들의 투쟁모습은 천리마대고조시기 해주-화성사이철길공사장

을 위해 애쓰는 광부들로 선광장은 끓어번졌다. 이런 속에 경의 일군들은 정은성, 정나성 동무가 강에서 흘러나오는 15도의 지열수를 리용하자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다.

강추위속에서 진행된 물관리 치공사는 광부들의 불굴은 투쟁열의 열기였다. 높은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그들은 언 땅을 깨고 양반을 한조각 또 한조각 정대와 함파로 매대면서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냈다. 선광장으로선 지열수가 힘없이 흘러들었다.

자력갱생의 강자들은 결국 엄혹한 강추위를 밀어냈다.

우리는 여기에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동계급의 투쟁내용을 다 적을수는 없다. 그러나 그를 대신하여 이렇게 꿰치고있다.

《지나온 혁명의 년대기들에 발휘된 건진불발의 의지와 자력갱생의 정신은 오늘날도 레일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위력한 추동력이라고.》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전진속도를 창조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할것을 바라고있다.

성천광산 일군들과 광부들의 건진불발의 투쟁은 오늘날의 벽한 시대에 어떻게 보폭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성섭  
사진 본사기자 신충혁

# 무한대의 힘 - 자력갱생

광산의 공무직장에는 무거운 작업이 나왔다. 부속품생산을 지난 시기의 2배이상 늘려야 하였다.

자재와 로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광산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는 공무직장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에 대한대담은 어려웠었다. 《혁명의 전세대들이 우리를 지켜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로 부속품을 생산보장하겠다.》

공무직장 동계급의 맹세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정경식, 림영수 동무들이 먼저 도끼가 따르며 여러대의 중요기대들을 맡아 전투에 진입하였다. 다른 몇몇간의 시간도 아까와 그들은 스스로 선자리에서 주먹으로 폐식을 굶으면서 기대를 돌리고 또 돌리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일광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조선기자동맹대표단이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 중공 방문 조선기자 동맹대표단 출발

평양역에서 리혁성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에스빠냐외무 및 협조성대표단 귀국

에스빠냐외무 및 협조성대표단 귀국하는 에스빠냐외무 및 협조성대표단이 19일 비행장에서 박명국 조선포로



